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화려함과 비참함

연일 충격적인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 미세 먼지까지 더해지는 스트레스. 그런 일상적 스트레스를 풀고픈 욕망의 에너지로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유흥 문화가 어느 한구석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유흥 놀이판에선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란 간단명료한 등급이 매겨진다. 그런 성별 등급 평가 이전에 입장 가능 신분으로 나 이 등급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하룻밤에 역대 돈을 뿌릴 정도의 재력남이라면 VIP 네트워크로 통하기에 이 놀이판에선 만사형통이다. 그들만의 여러 단톡방에서 드러나듯이 저마다의 욕망과 목표는 달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유지되는 이런 카르텔은 비호 세력을 보호막으로 두르고 있다. 이 화려한 세상은 인권과 법을 유린

해도 관행으로 여기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보호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세계에선 탈법·불법적 행위를 해도 권력이 유지되는 스티플 넘치는 영화 세상의 현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카르텔의 눈부신 조명과 보호막이 깨지고 여성은 물론 돈 없는 남성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추잡한 민낯과 위선이 드러난다. 화려함과 비참함의 공존이다. 강간과 폭력, 불뿔이라 불리는 마약과 탈세 등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로 드러나는 유흥 클럽 게이트 사건은 부조리한 세상을 목격하며 분노하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승리, 정준영, 최중훈 등 유명 연예인들이 주범으로 등장해 인간 이증성의 비참한 풍경이 펼쳐지는 중이다. 그들만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여성을 일회용 물건으로 취급하며 지위를 누린 셈이다. 클럽 이름 '버닝썬'이 암시하듯 타오르는 태양처럼 화려하게 불타오르던 그들은 그간 경험해 온 권력의 보호막을 믿었던 것 같다. 이런 요지경을 중계하는 온갖 기사들이 조희 수에서 폭발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진전되다 보니 또 다른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과거 사위위원회의 핵심 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얽힌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덮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그것이다. 수차례 과거사 조사 기간 연장을 했지만 이번 3월 말이 마감이라 더욱 그렇고, 심지어 피로감까지 있다는 불평도 들린다. 고장자연 사건의 경우 성 접대 현장의 목격자 윤지오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로운 추가 증인으로 정·관계나 언론 권력에 대한 조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학의 사건 피해자도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증언하고 있다. 그 현장인 성폭력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작됐고,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여성의 전화 및 1033개 단체가 발표했듯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놀이란 명목의 비즈니스 접대는 성폭력이라 불 법 음란 촬영물 유포 등 심각한 중대 범죄 행위들이다. 이들 권력망의 민낯을 제대로 조사하면 여성과 남성,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 일련의 사건들이 성폭력 권력의 카르텔이란 하나의 맥락으로 통한다. 아시아 피피 #미투 운동은 2017년 와인스타인이라는 할리우드 제작자가 오랫동안 보호막에서 누려 온 성폭력 관행을 여성 연예인들이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보호막의 그늘 아래서 화려하게 누려 온 남성 제작자들이 여배우들을 거느리고 과시하는 영화사의 전통은 아파도 인정해야

만(나 같은 전공자에게 더욱) 하는 진실이다. 그래서 고다르 감독이 '영화사(들)'란 다큐 연작에서 '영화 산업은 여자와 총'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그걸 입증하는 자료 화면을 영화사적 전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스마트폰을 손안에 쥐고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고발하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을 도우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정의로운 남성 시민 제보자도 존재하는 코스모폴리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특권층 내부 비리를 폭로해 흥행에 성공한 범죄 스티플 '내부자들'(2015, 우민호)에서 "돈 없고 뺨 있으면 나가 똤지세요. 참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우장훈 검사(조승우)의 존재는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다. 현실의 자양분을 먹고 사는 영화 세상이기에 더 이상 그런 권력의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다. 마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대국민 정책 선언을 준비한다는 최영애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고장자연 사건 이후 지난 10년도 넘게 여성 인권 단체가 해 왔던 여성 연예인 인권 보호 법제화 방안이 무산된 현 시점에서 인권위의 정책 선언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행안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봄바람을 맞는다.

기고



조용준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 경영 시대, 타운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도시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력 감소와 함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도시 시설의 관리 운영에도 한계를 갖게 된다. 돈은 적는데 쓸 곳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때는 도시 확장 단계와는 다른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이 필요한데,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현존 주의를 앞세워 아파트 공화국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한정된 활력을 놓고 민간 자력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과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는 재생이 풍선 게임임을 하고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이 얼마나 활력을 만들어 낼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모든 재생 사업을 정부 재정에 의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 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영국 최초 도시 재생 회사인 '리버풀 비전'의 최고 경영자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매력 있게 할 것 인가이다"라고 말했다. 도시 활력을 만드는 매력은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법규 디자인에 익숙한 행정 관청이다. 이제는 도시를 지자체(정부)가 책임지는,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인증받은 시민단체 등이 도시 시설에 수익 시설을 유치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성화에 다시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도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성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시 재생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타운 매니지먼트' ('Town Management')로 일종의 민간 주도 지역 활성화와 장소 마케팅이다. 매니지먼트 이론을 처음 주장한 피터 드러커는 적용 대상으로 도시 및 비영리 조직을 염두에 두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002년 요코하마는 무소속의 37세 젊은 시장을 선택했다. '민간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요코하마 실현, 비성장·비확장 시대에 대응하는 행정 전개'를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도시 경영극 신설과 함께 도시 경영 전략 회의를 설치하

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NPM)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과 함께 입성한 도쿄대 기타자와 다케루 교수는 당시 '도시의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통해 "21세기는 근대적 도시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근대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에서 탈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구조 전환 후의 도심 공동화, 교외로 나간 소비와 유통, 의료, 행정, 서비스 기능 등에 의해 쇠퇴한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민간 기업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공공 공간은 물론, 대규모 복합용도 건물까지 대상과 규모,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민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갖고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풋(input)을 허용한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에 아웃풋(output)되는데, 샷포로시 아카프라 광장, 도쿄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롯본기 힐즈(대리 빌딩), 뉴욕 타임스퀘어와 브라이언트 공원(민간조직이 공공 공간을 활용해 수익 창출)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Area Management)는 주민이 지역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일종의 새로운 도시 계획 수법이다. 일본은 2011년 '도시 재생 추진 법안 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 등의 활동 조직

이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각종 도시 시설 활용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 재생법에 근거해 '에리어 매니지먼트 분담금 제도'가 추가됐다. 미국의 'BDI'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는 도심 쇠퇴 등의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노력의 한계를 드러내자 자산 소유주, 기업 등 민간 영역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타운 매니지먼트다. 비영리 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재원과 운영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캐나다 등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을 통해 민간 주도의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재생은 중병의 내과 환자 치료와 같아서 지속적인 관찰과 진찰 아래 상황 변화에 따른 투약이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근대 큰 공장의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타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 중구 무교동 지구와 여의도 MBC 문화방송국 이전지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 제도로 지원도 모색하는 등 출발점에 선 상황이다. 선도적 창조 도시를 꿈꾸는 우리 도시가 이제부터라도 타운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갖고 작은 첫 걸음을 내딛으면 좋겠다. 그 작은 출발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 믿는다.

社說

영터리 '임대주택 정책'이 주거난 부추긴다

광주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가 3000여 명에 이른다 고 한다. 하지만 700여 채 가량은 서민들이 임대를 외면,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다.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주거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룸 수준의 비좁은 아파트가 양산된 탓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광주 남구 영구 임대 아파트 주월빛여울채는 288호 가운데 21호에 입주 희망자가 없어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의 쌍촌·하남·금호 175호, LH의하남1·각화·오치1·두암2·두암4·호천1 등 511호를 포함해 광주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686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반면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3357명에 이른다. 주인을 찾지 못한 이들 빈아파트의 면적은 24~29㎡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43㎡에 훨씬 못 미

친다. 이처럼 비좁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호수를 지자체에 할당해 건축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금액이 실제 건축비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공급 호수를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면적을 줄여 10평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면 영구 임대 아파트는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영세민들은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영터리 주택 정책으로 주거난만 심화시키는 꼴이다. 정부는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여야 4당이 지역구 의석을 225석(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번 주 의원총회 등 추진 절차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패스트 트랙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그동안 각 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어깃장만 놓다가 4당 합의가 이뤄질 듯하자 뒤늦게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1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은 것은 판을 깨겠다는 심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지역구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막판에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야 4당은 당초 정의당 등이 요구한 100%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50% 연동제를 적용해 최종 조율 중인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의 피해자로 꼽힌다.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이번에 의석 수 확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선거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구를 더 늘려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여야 4당은 더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즉각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할 것이다. 나머지 야 3당도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無等鼓

지난 3월 말께 오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투기가 카슈미르에서 공중전을 벌였다. 파키스탄 공군기가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지상에 폭탄을 투하했다. 인도가 전발 통제선(LoC)을 넘어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바로 보복 공격한 것이다. 앞서 10여 일 전 인도는 잠푸카슈미르주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 40여 명이 사망하자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선언했다.

부드럽지 못했다.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인도-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 독립했다. 이때 대부분의 카슈미르 주민은 이슬람교도라서 파키스탄 편을 바랐으나 정권을 잡고 있던 하리 싱이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 편임을 결정했다. 이에 카슈미르 이슬람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하리 싱은 인도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다. 1949년 유엔은 휴전을 선언하면

한 순간이었다. 양국은 150만 안팎의 핵탄두를

카슈미르

차질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양국은 150만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슈미르, 인도령)로 나 카슈미르 총리가 추락 인도 공군기의 조종사를 석방해 송환했다. 사태 확대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난 7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또다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 28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로 보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산악 지대다. 이 지역 염소 털을 사용해서 만든 직물을 캐시미어라 부른다. 캐시미어 매우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가벼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물이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삶은 이 직물만큼

서 카슈미르를 북부(아자드카슈미르, 파키스탄령)와 남부(잠푸카슈미르, 인도령)로 나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두 번의 전쟁이 더 벌어졌다. 카슈미르 주민 일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7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또다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 28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러로 보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산악 지대다. 이 지역 염소 털을 사용해서 만든 직물을 캐시미어라 부른다. 캐시미어 매우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가벼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물이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삶은 이 직물만큼

청춘 특·특

대학 생활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



이호빈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2학년

대학은 자신의 길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대학에 진학한 후 이 생각이 나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던 수험생이었을 때와 대학 생활은 너무나 달랐다. 수험생 때는 학교에서 미리 짜놓은 일정대로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려왔다면, 대학생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자신이 직접 반듯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었다. 대학은 길을 다듬는 도구의 역할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자신의 몫이다. 4년 동안 길을 반듯하게 잘 다듬어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느냐, 길을 잃고 헤매기만 하다 졸업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면 '이제 난 무엇 하지?'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자. '매사 열심히 한다'는 건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이든, 팀 과제든, 공모전 참가든,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열심히 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끼칠 수 있을 지라도 비난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면 모두에게 꺼려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꺼려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다. 기왕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하는 척 '홍내'만 내면 금방 티가 난다는 사실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 학술 연수나 해외 어학 연수, 해외 봉사, 교환 학생, 자격증 프로그

램 등이 있는지 알아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학과 공고 등에 신경을 쓰고, 선배와 동료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쓸모 있고 나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뭐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대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매끈하게 다듬어놓은 길을 걷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와 함께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입을 준비해 온 중고등 교육 과정 내에서 우리는 평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각종 학교 행사나 선배·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한 술자리를 갖는 것조차 내 의사사가 아닌 누군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나간다면,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대학생이 되길 응원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